

56개 주제로 배우는 초기불교 정수

각목 스님 4년간 역경수행으로 '상웃따 니까야' 6권 완역

20여년 전부터 남방 불교국가에서 도입된 위빠사나 수행 붐이 마침내 지난 10월 31일, 실질적인 교단인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장립을 이루는 등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경장(經藏, 니까야)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웃따 니까야(주제별로 모은 경률)>가 모두 한글로 완역됐다.

빠알리 니까야의 첫 번째인 <디가 니까야(장아함경)>를 2006년 교계 최초로 완역한 각목 스님(실상사 화엄학원 교수)이 4년간의 역경(譯經)수행을 통해 6권으로 완역한 <상웃따 니까야>는 부처님의 설법을 56개의 주제로 분류해 결집한 것이다. 현대적 판본의 기준이 되는

PTS(Pali Text Society)본 2889개 경과 미얀마본 2908개 경을 참조해 모두 2904개의 경들을 편집해서 옮겼다. 두타행을 실천했던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수한 가섭 존자의 제자들이 후대에 전승한 <상웃따 니까야>는 불교교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 전통교학을 계승해 총 3500 개가 넘는 주제(註解)를 달아 수행자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책은 범어원전에 대한 한국불교의 이해수준을 한 차원 높인 역작으로 평가된다.

<상웃따 니까야>에 포함된 56개 주제(상웃따)는 ①교학과 수행 중심의 '연기 상웃따' 등 26개 ②인물 중심의 '포살타 상웃따' 등 15개 ③특정한 존재 중심의 '현신 상웃따' 등 8개 ④인간 중심의 '비구니 상웃따' 등 5개 ⑤기타 '숲 상웃따'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목 스님은 이러한 56개 주제를 제1권 '계승을 포함한 가르침', 제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권 '오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4권 '육체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5권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 제6권 '진리를 위주로 한 가르침' 등 모두 6권으로 구성했다.

각목 스님은 "빠알리 삼장은 불교 만

대의 뿌리여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처님 원음(原音)을 담고 있다"며 "초기 불전의 매개언어인 빠알리어는 한글과 언어체계 가 같아 한역 경전이 범할 수 있는 오역의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각목 스님은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초기 경전과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만든 다양한 주석서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불교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한국불교의 주제적인 전통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웃따 니까야>가 완역됨으로써 초기 불전연구원(원장 대립)은 지난 2006년 1월에 완역한 <디가 니까야>와 2006~2007년에 대립 스님이 전6권으로 번역한 <앙감따라 니까야(중일아함경)>에 이어 모두 3개의 니까야를 완역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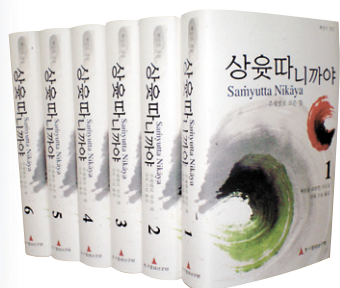
초기불전연구원(cafe.daum.net/chobul)은 2010년 5월 <맛지마 니까야(중아함경)>를 전3권으로 번역(대립 스님) 출간해 4부 니까야를 모두 완역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율장(위야나 빠따까)과 논장(아비담마 빠따까), 소부(쿠타까까 니까야)의 장로게, 장로니게와 빠알리-한글 대사전도 출간할 예정이어서 초기불전 역경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각목 스님은 "부처님 원음이 우리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돼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후원: (041)668-8579

상웃따 니까야(전6권) | 각목 스님 역주 | 초기 불전연구원 | 각권 3만원 김성우 기자



각목 스님



부처님 지혜로 고통 속 희망·행복 찾기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21년만에 산문집 펴내

"항기를 따라가면/꽃을 만나고/별을 쫓아 가면/꿈을 얻는 법/인생은 누구도/두 번 갈 수 없는 길/문 열고 나온 사람아/ 어디로 갈 것이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정릉 청안사 주지)의 '항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라는 시다. 이 시의 제목에서 '항기'란 아마도 '부처님 법'을 말할 터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면 마침내 방편의 배를 타고 열반이란 저 언덕에 도달할 것임을 암시하는 시다.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조 '체석장 풍경'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청화 스님이 이 시와 같은 주제, 같은 제목으로 <항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라는 산문집을 21년만에 펴냈다. 청화 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에세이집을 낸 것은 삶의 고통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힘든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의 삶 쪽에서도 불교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한 마디로 스님의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고통이 없는 안락한 삶과



청화 스님

인생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고 특히 인격적으로 허물 없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편의상 3부로 편집됐다.

1부의 주제는 성찰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왜 같지 않은가? '네 종류의 친구', '비린내 나는 행위', '눈 뜨고 잠자는 사람' 등등. 이런 제목하의 성찰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진지함이 있다.

2부의 주제는 불교의 행복론이다. 진리에 의한 행복, 식견에 의한 행복, 윤리에 의한 행복, 자비에 의한 행복, 도덕에 의한 행복 등등. 이는 세인들의 관심 사항인 행복에 대해 스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3부의 주제는 각성이다. 여기에는 '소리 있는 물', '소리 없는 물', '노력하는 삶', '비가 세는 지붕', '사람의 네 가지 모습' 등의 소재들이 있다.

다양한 삶의 주제를 깊고 넓은 시각으로 통찰하는 스님의 글은 때론 방향하거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로와 같은 이야기들로 에너지와 감동을 준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라고 당부한다.

항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 청화 스님 지음 | 개미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

30년 포교·수행관 담아



원효 대사가 어느 날 시주를 다녔는데, 어느 집에서 시주자가 질문을 했다.

"불교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설 <원효대사>의 이 장면을 읽고 출가자의 길로 들어선 선산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이 30년간의 수행과 포교 이야기를 담은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해조음)를 펴냈다.

책에는 경주불교문화원을 개원해 포교의 전법사를 자임한 대혜 스님이 어린이·학생법회와 재조사·경찰법회 등을 주관하며 느낀 체험적 불교관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스님은 "바다와 같은 법을 전하며 '신행의 씨앗' '기도 수행' '포교의 전법사가 되어' 등 7부로 나눠 일상속의 정진방법과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 대혜 스님 지음 | 해조음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그냥 무조건이야	대형	한미음성원
2	사는 즐거움	보경	들
3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권영두	윤주사
4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5	부처는 공부	우학	들
6	이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8	인파경	한담	선
9	연연가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10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3672-7181~5

한·중 선사 6인에게 듣는 '금강경'의 골수

이인혜 불문연 연구원, 금강경오가해·설의 번역



"<금강경>은 무상(無相: 고정된 형상이나 관념이 없음)을 중지로 삼고, 무주(無住: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음)를 바탕으로 삼고, 묘유(妙有: 있음과 없음의 대립)를 떠나 존재하는 양상을 작용으로 삼는다."

(육조 스님의 <금강경> 서문) 선종과 <금강경>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선종의 주안점이 '반야에 대한 안목(般若眼)

을 갖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종의 6조인 혜능 대사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금강경> 4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밝아져, 5조 홍인 대사가 문하로 출가한다. 이후 6조가 5조로부터 다시 <금강경> 법문을 듣고 확실히해 전법인 가를 받은 이래, <금강경>은 한국의 조계종을 비롯한 선종의 소의경전이 된 것이다.

1000 여종에 달하는 역대 <금강경> 주석서 중 가장 권위 있는 주해(註解)로 꼽히는 중국의 <금강경 오가해>를 한국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금강경오가해·설의>가 번역 출간됐다.

봉선사 불경서당에서 월운 스님께 경문을

배우고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동국대 이인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이 번역한 이 책은 난해한 원문을 현대적인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역작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는 중국의 규봉종밀선사, 육조혜능 선사, 부 대사, 아보도천 선사, 예장종경 선사의 해설을 묶은 <금강경오가해(五家解)>에, 조선초기 함허득흥 선사가 정리하면서 총평을 단 '설의(說意)'가 추가된 책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공부와 실참으로 들어가 보자.

금강경오가해·설의 | 합허 편저, 이인혜 역주 | 도피안사 | 3만 원 김성우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잡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상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여러분의 오늘 운세는?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 무료강의내용 ◀

파자비결·생활풍수(살내인테리어) 월.수.금 2개월 무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0 플래티늄 빌딩 403호 송암출판사 강익실
주문전화 02)2266-8823 H.P 010-7742-3111

- 갑골문자는 하늘의 계시로 기록한 점서(占書)이며 한자(漢字)의 모체로 신통력이 있다.
- 갑골문자를 모체로 한 한자(漢字)는 변(邊)과 체(體)가 역(易)을 근본으로 음양오행이 조화되어 철학적 가치가 있다.
- 백팔번뇌 파자비결은 한자의 변(邊)과 체(體)를 음양오행으로 파자(破字)하여 천부의 계시를 표의(表意)하였으므로 미신이 아니다.
- 격암유록 정감록비결도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미래의 국운을 예지한 예언서이다.
-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매번 매일 매일 매시의 운세를 108장의 파자비결의 신통력으로 볼 수 있다.